

#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여가시설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김 세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 은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이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 중 여가시설을 1회라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24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도출하고,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 분석 결과, 경로당형(50.0%), 복지관형(35.2%), 공공여가시설형(10.4%), 민간여가시설형(4.4%)이 도출되었으며, 소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사회참여특성 모두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이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일수록, 무배우자일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복지관형과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목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경로당형보다는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가인프라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도시지역 거주 노인, 여가시설, 이용유형, 잠재집단분석

\* 교신저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silverna@kijhasa.re.kr)

■ 투고일: 2017.7.26    ■ 수정일: 2017.8.30    ■ 게재확정일: 2017.9.5

##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지나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후소득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어진 노년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년기를 보낼 것인가도 노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이듦에 따라 여가참여가 점차 감소하면서 적극적인 여가에서 소극적인 여가로, 옥외활동에서 옥내활동으로 전환되고, 여가활동에 있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등 여가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Nimrod & Janke, 2012, pp.98-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다른 세대, 즉, 보다 젊은 층에 비해 삶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Guire et al, 2009; 윤혜진, 2015 재인용, p.171).

노년기 여가활동은 성공적 노화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이수진, 송미순, 2015), 신체적 건강증진(김양례, 2006; 김명숙, 고종욱, 2013), 우울수준 완화(현진희, 김희국, 2011; 이은주, 2014; Choi et al., 2015), 자살생각 감소(이종경, 이은주, 2010; 김예성, 하용용, 2015) 등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시절 여가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년기가 되어 우울함이나 답답함 등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건강관리, 친목도모 등의 활력을 찾고, 삶의 성취감, 의미, 역할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 황희정, 2008). 이렇듯 노년기 여가활동은 노후의 삶의 만족이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주로 TV 시청으로 대표되며, 집 주변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4). 이러한 현상은 생애누적적인 여가경험의 부족,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제약, 노인을 위한 여가인프라 부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시간소비적이고 오락사교적인 여가 활동, 즉,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인 여가활동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성, 하용용, 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가 제약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는 시간 및 비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소도 갖춰져야 한다(박광희, 김대관, 2014). 즉, 노인들의 여가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용가능한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여가 인프라 또는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노인여가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년기 여가활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및 건강행동(김양태, 2006; 김명숙, 고종욱, 2013), 심리정서적인 건강증진(이종경, 이은주, 2010; 이은주, 2014; Poelke et al., 2016), 사회적 관계 유지(이은주, 2014; 윤혜진, 2016), 삶의 질(이향숙, 신원우, 2016; 이민성, 강희엽, 이철원, 2017) 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내용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속한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적 결과나 건강행동상의 결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익, 2008; 박근수, 2011; 박상훈, 손명희, 2014; 황남희, 2014; 김현정, 강은나, 배혜원, 2016; 이향숙, 신원우, 2016). 즉, 그동안의 노인여가와 관련한 연구들은 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왔으며, 노인들이 어디에서 여가활동을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일부 노인여가시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이경재, 남궁선, 2011; 이혁, 2012; 하춘광, 김효순, 2013),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공공여가시설, 혹은 민간여가시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의 인구 및 지리적 특성, 노인여가복지시설 혹은 인프라 격차, 지역간 노인들의 생활양식 및 여가경험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종천, 2011; 이윤경 등, 2012; 이윤경, 2013; 홍석호, 김순은, 2016).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여가자원이 다양하고 양적으로 풍부하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이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에 비해 여가시간도 많고 여가활동의 내용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윤인지, 김상운, 2005; 강주희, 윤순덕, 2007). 이러한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지역간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시설 이용 유형이 어떠한지, 여가시설 이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고령사회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가인프라 측면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 여가시설의 범위와 이용현황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여가공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가공간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 및 공간의 총체로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선용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김형국, 1997, pp.3-12; 윤양수, 김의식, 2002, p.16 재인용). 그러므로 여가공간에는 집, 공원, 체육시설, 공터, 놀이터, 체육관, 교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인의 여가공간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마다 수행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된 여가활동 1순위는 TV 시청이 60대 72.3%, 70세 이상 73.3%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책이 각각 8.8%와 8.6%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p.72). 그리고 60대 및 70대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공간은 60대의 경우 근린공원(34.4%), 아파트내 공터(28.8%), 재래시장(27.6%), 식당(26.5%) 등의 순이었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터(34.4%), 근린공원(33.9%), 재래시장(32.6%) 등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p.106).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등 노인의 여가활동 내용은 다양하지 못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나 개인적 보람이나 성취감을 얻기에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여가공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보다 다소 협소한 개념인 여가시설에 국한하고자 한다. 여가시설은 여가공간에 포함되지만 단위 시설을 의미하며(박광희, 김

대관, 2014, p.582),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지방문화원 등과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휘트니스 센터나 문화센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여가시설은 연령이나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가 취약계층인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해당된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취미활동, 친목도모, 사회참여 활동 등의 기능과 함께 소득보장, 건강증진 등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6,292개소로 경로당이 64,568개소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교실 1,377개소, 노인복지관 3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주간 평균 이용일수는 4.2일이었으며, 노인복지관 이용율은 8.9%로 평균 2.6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4, p.461, p.466). 같은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자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로당 이용노인은 평균연령 75.0세로 70대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평균연령은 73.5세로 65~74세 연령대가 62%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역간 편차는 커서 경로당 이용노인의 60.8%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77.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4, p.244).

## 2. 노년기 여가시설 이용과 영향요인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현황과 여가시설 이용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여가공간 유형별 노인의 여가특성과 만족을 분석한 박광희와 김대관(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은 실외 생활권 공원 39.8%, 실내 문화·복지·교육공간 33.9%, 실내오락시설 13.9% 등이었으며, 선호하는 여가공간은 실내 문화·복지·교육공간 30.9%, 실외 관광

체험 시설 24.8%, 실외 생활권 공원 22.1% 등으로 현재 이용하는 여가공간과 선호공간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만족에 있어서는 실내 오락시설 이용노인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노인여가활동에 있어 활동중심의 여가공간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계소득의 차이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박종천(2011)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등산이나 산보 등과 같은 가정 밖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농촌지역 노인의 여가장소는 가정이나 경로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은 하지 않는 노인이 가장 많았지만, 교양강좌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유료 학원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천, 2011, p.413).

이수진과 송미순(2015)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활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성공적 노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군(5.54%), 경로당군(30.97%), 복수시설이용군(3.24%), 비이용군(60.25%)으로 구분되었다. 복수시설이용군의 성공적 노화 비율은 20.94%, 노인복지관군 20.17%, 경로당군 11.60%, 비이용군 10.41%으로 나타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유형에 따라 성공적 노화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과 송미순(2015)의 연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의 민간 혹은 공공여가시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본 논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석호와 김순은(2016)은 노인의 거주지역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 거주 노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도농복합지역의 노인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노인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였다.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2015)은 경기도 K군 1개 면의 노인을 전수 조사하여 농촌노

인의 경로당 이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 농촌노인의 68.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노인의 90% 이상이 경로당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이 적을수록 경로당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 가능성이 높아 인지적, 심리정서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기 여가시설 이용과 영향요인에 관한 문헌을 종합하면, 주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공이나 민간을 통틀어 노인이 여가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노인이 어떤 여가시설을 이용하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통적인 연구결과로 노인들은 여가시설보다는 집 주변의 공원이나 공터를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만여개 이상 운영 중에 있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당이 우수한 접근성으로 노인들의 만남과 친목의 장소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환경 등을 감안할 때(박용범, 2010, pp.461-462)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환경적, 내용적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의 주된 기능이 자신의 실체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강화라고 할 때(남은영, 최유정, 2008, p.66), 향후 노인 세대를 위한 여가시설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에 대해 일대일 면접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정경희 등, 2014). 완료된 조사 대상은 총 10,451명이

며,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도시 거주 노인은 행정 구역의 ‘읍·면·동’ 중에서 ‘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으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의 중소도시에 살면서 ‘읍’이나 ‘면’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10,451명 중 도시지역 거주 노인은 8,008명이며, 이 중 여가시설을 한곳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노인은 2,244명으로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28.0%에 해당된다.

## 2. 주요 변수 설명

### 가. 여가시설 이용 지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내 복지기관,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 등 총 5개의 여가시설 이용 유무 지표를 사용하였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은 ‘지난 1년간 시설을 이용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1,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면 2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1, 이용한 경험이 없으면 0으로 재코딩하였다. 지역내 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이외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을 의미한다. 이들 복지기관은 여가서비스 제공이 주된 기능은 아니지만 기관 이용자를 위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문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여가문화복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7),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회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재필,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의 복지관 등도 여가시설로 분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공공여가시설은 문화회관·구민회관·주민센터 등을 말하며, 민간여가시설은 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의미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복지기관,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 이용에 대한 응답 범주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0, 거의 매일(주4회 이상)=1, 일주일에 2~3회 정도=2, 일주일에 1회 정도=3, 한 달에 1~2회 정도=4, 3개월에 1~2회 정도=5, 1년에 1~2회 정도=6’으로 구성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0’으로, 1회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1'로 재코딩하였다.

## 나. 여가시설이용 영향요인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그리고 사회활동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및 학력, 취업유무, 소득수준이 포함된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결혼상태 문항을 재코딩하여 유배우자는 1, 무배우자는 0으로 측정하였다. 취업유무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지난 한 해 가구의 총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건강특성은 신체적 기능제한 여부, 만성질환 수, 주관적 건강상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체적 기능제한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중 최소 1개 이상 동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기능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1, 타인의 도움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기능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0으로 재코딩하였다.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개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1'부터 '건강이 매우 나쁘다=5'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활동은 지난 1년간 학습활동,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참여 여부로 구성되며, 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살펴보고, 이용 유형별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실시하였다. LCA는 범주형 자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있어 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 혹은 잠재집단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강은나·이민홍, 2014 p.141).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 기준이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 Entropy지수, Lo-Mendell - Rubin LRT로 이들을 통하여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다. AIC, BIC, SSABIC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세 값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증가하기 전의 유형개수가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ntropy 지수는 0부터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Jedidi et al., 1993). Lo-Mendell-Rubin LRT는 .05 미만일 경우 모델이 채택된다(Lo et al., 2001).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는 최종적인 잠재계층모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도 지수, 모형의 간결성, 잠재집단의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Jung and Wickrama, 2008; 강은나, 2013, p.5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활용된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경험 변수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 외 복지관 등,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의 이용 경험 유무로 범주형 변수이다. 이는 LCA의 변수분포에 대한 기본 가정인 잠재유형 변수 측정 문항의 응답 항목이 1에서 R까지 일련의 정수로 코딩되어야 하며, 변수의 분포에서 잠재유형 내에서 관찰된 지표들 간의 상호독립성(이정은, 조미형, 2009 p.88) 조건을 충족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시설 이용유형 검증을 위해 Mplus 7.3버전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LCA를 통해 유형화된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참여특성이 각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244명의 대상자 중 여성 65.2%, 남성 34.8%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평균 74.8세(표준편차: 6.0)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 33.9%, 무학(글자해독) 23.8%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고졸이상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배우자는 56.7%로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미취업자가 75.4%로 취업자(24.6%)에 비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3,425만원(표준편차: 36,532.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대상자는 85.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성질환수는 2.7개(표준편차 1.8), 주관적 건강상태는 3.2점(표준편차 1.0)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수준보다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사회참여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참여자 37.1%, 동호회활동 참여자 6.2%, 친목활동 참여자 48.4%로 친목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13.7%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동호회활동은 4.9%, 친목활동은 43.3%인 것을 볼 때,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체 노인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들은 전체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정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개, 점, 만원)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244	100.0
성별		
여성	1,464	65.2
남성	780	34.8
학력		
무학(글자모름)	203	9.0
무학(글자해독)	534	23.8
초등학교	760	33.9
중학교	294	13.1
고등학교	307	13.7
전문대 이상	146	6.5
배우자유무		
무배우자	971	43.3
유배우자	1,273	56.7
취업여부		
미취업	1,691	75.4
취업	553	24.6
기능제한여부		
없음	1,908	85.0
있음	336	15.0
학습활동 참여		
미참여	1,411	62.9
참여	833	37.1
동호회활동 참여		
미참여	2,104	93.8
참여	140	6.2
친목활동 참여		
미참여	1,158	51.6
참여	1,086	48.4
평균 연령(표준편차)	74.8세(6.0)	
연평균 가구소득(표준편차)	3,425만원(36,532.4)	
만성질환 수(표준편차)	2.7(1.8)	
주관적 건강상태(표준편차)	3.2(1.0)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여가시설 이용 분포를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자가 1,322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관(723명, 32.2%), 복지기관(549명, 24.5%), 공공여가시설(295명, 13.1%), 민간여가시설(118명, 5.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상당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여가시설 이용 분포

(단위: 명, %)

구분	경로당		노인복지관		복지기관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244	100.0	2,244	100.0	2,244	100.0	2,244	100.0	2,244	100.0
미이용	912	40.6	1,521	67.8	1,695	75.5	1,949	86.9	2,126	94.7
이용	1,332	59.4	723	32.2	549	24.5	295	13.1	118	5.3

## 2. 여가시설 이용 유형

노인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AIC, BIC, SSABIC, Entropy, LMR LRT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LMR LRT는 5가지 모형이 모두 .05미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IC는 2개 모형부터 6개 모형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BIC와 SSABIC는 5개 모형까지 감소하고, 6개 모형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6개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ntropy지수에서는 6개 모형을 제외하면, 4개 모형에서 0.966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는 최종적인 잠재계층모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도 지수, 모형의 간결성, 잠재집단의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강은나, 2013, p.59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지표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4개 모형과 5개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개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분류의 질은 좋으나, 새로 추가되는 잠재집단의 특성이 모호하고 집단 내 최소 사례수가 79(3.5%)개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모형이 5개 모형보다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4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여가시설 이용 유형 모형별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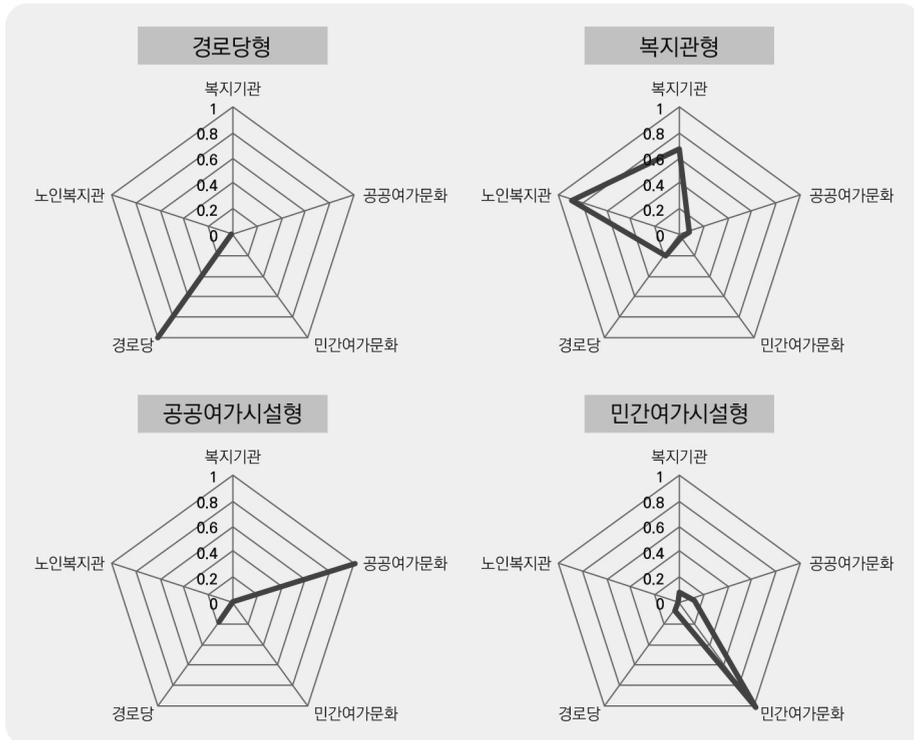
집단 개수	AIC	BIC	SSABIC	Entropy	Lo Mendell Rubin test (p)	집단별 분포(n=2,244)
2개	9234.481	9297.357	9262.408	0.888	1770.173(0.0000)	1,086(48.4%), 1,158(51.7%)
3개	8553.03	8650.207	8596.195	0.94	678.784(0.0000)	803(35.8%), 283(12.6%), 1,158(51.7%)
4개	8300.595	8432.063	8358.988	0.966	258.849(0.0000)	1,112(50.0%), 799(35.2%), 234(10.4%), 99(4.4%)
5개	8233.12	8398.884	8306.747	0.925	77.795(0.0000)	659(29.4%), 143(6.4%), 245(10.9%), 1,118(49.8%), 79(3.5%)
6개	8221.148	8421.208	8310.007	0.996	23.465(0.0000)	79(3.5%), 192(8.6%), 11(0.5%), 245(10.9%), 538(24.0%), 1,179(52.5%)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4개 모형의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은 경로당만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은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복지기관과 노인복지관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집단 1은 ‘경로당형(50.0%)’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노인복지관 이용 확률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복지기관 이용 확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경로당은 낮은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집단 2는 복지기관과 노인복지관을 통합하여 ‘복지관형(35.2%)’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공공여가시설은 전적으로 이용하지만 민간여가시설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경로당, 복지기관, 노인복지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공공여가시설형(10.4%)’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민간여가시설은 전적으로 이용하지만, 공공여가시설, 복지기관, 경로당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용하며, 노인복지관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민간여가시설형(4.4%)’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여가시설 이용 유형 응답확률(n=2,244)

구분		경로당형	복지관형	공공여가시설형	민간여가시설형
복지기관	0	0.999	0.328	0.973	0.908
	1	0.001	0.675	0.027	0.092
공공여가문화	0	1.000	0.932	0.000	0.883
	1	0.000	0.068	1.000	0.117
민간여가문화	0	1.000	0.974	1.000	0.000
	1	0.000	0.026	0.000	1.000
경로당	0	0.000	0.804	0.819	0.922
	1	1.000	0.196	0.181	0.078
노인복지관	0	0.983	0.111	0.991	1.000
	1	0.017	0.889	0.009	0.000

그림 1. 여가시설 이용 유형 응답확률



### 3.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노인의 특성

다음으로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을 제외한 인구 사회학적특성, 건강특성, 사회참여특성 모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로당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67.5%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은 79.5세로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였다. 학력은 초졸이하의 비율이 80.2%로 낮은 수준의 학력을 보이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52.2%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29.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 총 소득은 2,76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로당형'의 건강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만성질환수는 2.9개, 주관적 건강상태는 3.3점으로 타 유형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특성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참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호회 활동의 경우 2.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복지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타 유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낮았으며, 연령은 74.1세(표준편차 5.5)로 평균수준을 보였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56.6%로 '경로당형'보다는 높은 수준의 학력 분포를 보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59.2%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21.1%이며, 가구 총 소득은 3,172.5만원이었다. 건강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91.2%로 '경로당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수는 2.6개, 주관적 건강상태는 3.1로 평균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참여특성에서는 학습활동과 친목활동 참여자가 각각 50% 이상이었으며, 동호회 참여자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여가시설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69.7%로 타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은 71.0세(표준편차 4.9)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3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배우자의 비율은 63.7%였다. 이들의 취업률은 19.2%, 소득수준은 7,097.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수준을 보였다. 건강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9.0%, 만성질환수는 2.6개, 주관적 건강상태는 2.9점으로 '복지관형'과 평균적 만성질환 수는 같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좀 더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특성을 살펴보면, 학습활동 참여자의 비율이 84.2%로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친목활동 65.4%, 동호회 활동 11.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여가시설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은 64.6%로 남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70.8세(표준편차: 4.9)로 모든 유형중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학력수준도 고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49.5% 모든 유형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비율도 70.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자는 15.2%로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 총 소득은 4,150.2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특성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4.0%, 만성질환수는 2.1개, 주관적 건강상태는 2.6으로 네가지 유형 중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참여특성은 친목활동 참여자의 비율이 79.8%로 가장 높았으며, 동호회 활동도 16.2%로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5.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노인의 특성

	경로당형 (=a)	복지관형 (=b)	공공여가시설형 (=c)	민간여가시설형 (=d)	전체	X <sup>2</sup> /F
<b>성별</b>						
여성	67.5	60.8	69.7	64.6	65.2	11.479**
남성	32.5	39.2	30.3	35.4	34.8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학력</b>						
무학(글자모름)	13.4	6.0	2.1	1.0	9.0	317.466***
무학(글자해독)	31.0	18.6	14.5	6.1	23.8	
초등학교	35.8	32.0	31.2	33.3	33.9	
중학교	9.2	16.6	20.9	10.1	13.1	
고등학교	8.4	19.4	16.2	21.2	13.7	
전문대 이상	2.2	7.3	15.0	28.3	6.5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배우자유무</b>						
무배우자	47.8	40.8	36.3	29.3	43.3	23.561***
유배우자	52.2	59.2	63.7	70.7	56.7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취업여부</b>						
미취업	70.9	78.8	80.8	84.8	75.4	25.831***
취업	29.1	21.2	19.2	15.2	24.6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기능제한여부</b>						
없음	78.3	91.2	91.0	96.0	85.0	79.331***
있음	21.7	8.8	9.0	4.0	15.0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경로당형 (=a)	복지관형 (=b)	공공여가시설형 (=c)	민간여가시설형 (=d)	전체	X <sup>2</sup> /F
<b>학습활동</b>						
미참여	88.7	44.3	15.8	34.3	62.9	691.586***
참여	11.3	55.7	84.2	65.7	37.1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동호회활동</b>						
미참여	97.5	91.4	88.5	83.8	93.8	62.065***
참여	2.5	8.6	11.5	16.2	6.2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b>친목활동</b>						
미참여	61.2	47.1	34.6	20.2	51.6	114.093***
참여	38.8	52.9	65.4	79.8	48.4	
소계	100.0(1,112)	100.0(799)	100.0(234)	100.0(99)	100.0(2,244)	
평균 연령(표준편차)	79.5 (6.0)	74.1 (5.5)	71.0 (4.9)	70.8 (4.9)	74.8 (6.0)	89.916*** a>b>c>d
연평균 가구소득 (표준편차)	2769.3 (299983.6)	3172.5 (35351.9)	7097.2 (65243.4)	4150.2 (4382.8)	3425.1 (36532.4)	0.933
만성질환 수 (표준편차)	2.9 (1.8)	2.6 (1.8)	2.6 (1.8)	2.1 (1.7)	2.7 (1.8)	6.868*** a>c>b>d
주관적 건강상태 (표준편차)	3.3 (0.9)	3.1 (1.0)	2.9 (0.9)	2.6 (0.9)	3.1 (1.0)	18.387*** a>b>c>d

주: 1)  $p^* < .05$ ,  $p^{**} < .01$ ,  $p^{***} < .001$

2) 분산분석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할 경우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함.

#### 4.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으로 분석된 네 개의 잠재집단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집단은 네 개의 잠재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분석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우도비 검증값이 1123.33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로당형’을 기준으로 ‘복지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미취업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경로당형’보다는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건강특성에서는 기능제한이 없을수록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회참여특성에서는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경로당형’을 기준으로 ‘공공여가시설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미취업자일수록 ‘경로당형’에 비해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참여특성에서는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로당형’을 기준으로 ‘민간여가시설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회참여특성에서는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친목활동에 참여할수록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6.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기준집단: 경로당형)

구분	복지만형			공공여가시설형			민간여가시설형			
	exp(B)	CI		exp(B)	CI		exp(B)	CI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0=여)	1.800***	1.373	2.359	1.759*	1.142	2.708	1.120	.639	1.963
	연령	.940***	.920	.960	.844***	.813	.876	.868***	.825	.913
	학력	1.324***	1.197	1.465	1.396***	1.190	1.638	1.701***	1.376	2.102
	배우자(0=무)	.752*	.582	.972	.623*	.419	.927	.625	.362	1.080
	취업여부 (0=무)	.620***	.481	.799	.555**	.366	.840	.345**	.186	.640
	연평균 가구소득(로그값)	.748***	.646	.867	1.107	.887	1.380	1.583**	1.195	2.097
건강특성	기능제한여부(0=무)	.576**	.411	.809	.824	.460	1.477	.478	.163	1.403
	만성질환수	.984	.917	1.056	1.083	.968	1.212	.987	.838	1.163
	주관적 건강상태	1.064	.927	1.222	.928	.744	1.157	.873	.638	1.195
사회참여 특성	학습활동	9.849***	7.618	12.732	33.851***	21.911	52.298	7.709***	4.615	12.877
	동호회활동	1.599	.942	2.714	1.252	.637	2.463	1.253	.577	2.724
	친목활동	.875	.691	1.108	.836	.574	1.217	1.785*	1.011	3.151
유효수(N)	2,244									
likelihood $X^2(df)$	1123.335(36)***									
-2Log Likelihood	3,764.259									

\* p<.05, \*\* p<.01, \*\*\*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여가시설 이용을 통한 노인의 여가생활 촉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을 유형화 하고,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참여 형태들이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경로당, 노인복지관, 복지기관,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에 대한 이용 유무 지표를 활용하여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참여 특성이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여가시설 이용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244명 중 대다수의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는 경로당(59.4%)과 노인복지관(32.2%)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 공공여가시설, 민간여가시설의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가시설 이용에 있어 세대 간 분절적인 이용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여가시설 이용 유형은 경로당형(50.0%), 복지관형(35.2%), 공공여가시설형(10.4%), 민간여가시설형(4.4%)으로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여가시설 이용확률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거주 노인은 복수의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한 가지 유형의 여가시설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복지관형의 경우 경로당과 공공여가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 확률이 더 높다는 유병선 등(2015, p.18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가시설 이용 유형별 노인의 특성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경로당형 → 복지관형 → 공공여가시설형 → 민간여가시설형」으로 갈수록 연령은 낮고, 학력수준과 유배우자 및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 모두 건강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노인들

이 지역사회 내 여가문화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연령, 학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계층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한 노인일수록 경로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로당 이용 노인이 경로당 이용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연령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유성호, 2009)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취업여부의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로당 이용 확률이 더 낮다(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는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노인을 포함한 전체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이 아닌 여가시설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여가시설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다른 여가시설보다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가구의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연평균 가구소득은 경로당형에 비하여 복지관형에 속하는 노인가구소득이 낮았으며,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한 노인의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관인 경우 일부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간여가시설 이용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민간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서비스가 유료일 확률이 높아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여섯째, 건강관련요인에서는 만성질환 개수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복지관형에 속한 노인이 경로당형에 속한 노인에 비해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으로 기본적으로 외출이나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소 건강이 양호한 노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가시설 이용유형에 따른 노인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곱째, 사회참여 특성에서는 경로당형에 속한 노인이 타 유형에 속한 노인에 비해 학습활동 참여도가 낮았다. 이는 현재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7) 경로당만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여가시설형은 경로당형에 비하여 친목활동에 참여는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로당형의 노인들은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타 유형에 비해 좋지 않고, 취업률이 높아 여가시설 이용 이외의 친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건강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가시설 활용을 통한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인프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위 두 형태의 시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경로당은 노인 1만명당 1개소로 설치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프로그램 미실시 비율은 42.8%로(이윤경, 2013, p.64)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친목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와 반대로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 347개소(보건복지부, 2016)로 지자체별 1~2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지역밀착형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는 2017년 기준 51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다(서울특별시, 2017). 노인여가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지원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노인들이 공공여가시설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지역문화원 등을 통해 매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문화동호회,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272개 정도의 활동만 지원하고 있어 50세 이상 고령 인구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은 타 유형의 시설 이용자에 비하여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보다 고학력의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경로당 및 복지관보다는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공공여가시설을 통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노인 혹은 고령

자가 이용가능한 여가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한정란, 2016)으로 향후 지역별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등은 각 지역기관마다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여가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혹은 공공여가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인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문화바우처를 매년 받게 된다. 문화바우처의 대상이나 이용가능한 금액의 제한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인들이 문화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민간여가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여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리적 혹은 여가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파리의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여가시설 또는 민간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적인 여가시설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여가시설은 노인 스스로 이용을 포기하게 되어 여가생활을 위축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이나 공공여가시설의 경우, 노인들이 여가시설 안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개인의 다양한 신체적 능력과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여가시설이 설계 및 정비될 필요가 있다(임채숙, 2011 p.77).

다섯째, 노인과 다른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적 여가시설 운영모델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내 여가시설 이용에 있어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진입장벽이 없어야 할 것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여가시설에서도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과 중년과 청년, 노인과 청소년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도 세대간 이해를 높이는

---

1)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55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1년 중 3개월간 각 구별 공영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여가시설 인프라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도시지역의 특성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각각의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지역 거주노인 중 여가시설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8.0%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여가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72.0%의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여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이용노인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미이용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므로, 여가시설 미이용자의 특성 및 원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차자료 이용의 한계로 여가시설의 다양한 유형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여가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인 노인교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등의 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의 세부적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과 같은 다소 이질적인 기관들을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여가서비스 외에 복지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가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자원인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이용자들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노인 여가문화 인프라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세진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장기요양, 사회참여이며, 현재 장기요양,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oopiasj@khisasa.re.kr)

강은나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고령사회정책이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노인사회참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ilverna@khisasa.re.kr)

## 참고문헌

---

- 강은나, 이민홍. (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 요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pp.133-160.
- 강은나, 김재호, 황남희, 김현정, 손동기, 배혜원. (2015).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주희, 윤순덕. (200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지역적 편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pp.369-378.
- 김명숙, 고종욱. (2013).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60, pp.35-54.
- 김양래. (2006).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건강상태 및 고독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9(2), pp.237-248.
- 김예성, 하응용. (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pp.344-374.
- 김현정, 강은나, 배혜원. (2016). 은퇴전환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화 연구. *보건사회연구*, 36(2), pp.192-226.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어떤 농촌노인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가?. *사회복지정책*, 42(2), pp.163-184.
- 박광희, 김대관. (2014). 여가공간 유형별 노인여가 특성 및 만족 분석. *관광레저연구*, 26(7), pp.579-595.
- 박근수. (2011).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한 노인여가유형별 특성 분석: 서울지역 노인이 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83-100.
- 박상훈, 손명희. (2014).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고독감. *관광레저연구*, 26(2), pp.373-389.
- 박용범. (201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pp.453-463.

- 박종천. (201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pp.395-415.
- 보건복지부. (2016). 2016 노인복지시설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 2017 노인복지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2017). 2017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 유병선, 정규형. (2015). 도농간 경로당 이용 결정요인 차이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pp.171-196.
- 유성호. (2009). 경로당 발전방안 탐색: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pp.1463-1478.
- 윤양수, 김의식. (2002). 레저행태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안양: 국토연구원.
- 윤인진, 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pp.162-202.
- 윤혜진. (2015). 노인여가 연구의 학문적 동향 및 연구 제언. 관광레저연구, 27(7), pp.169-186.
- 윤혜진. (2016).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에이징 웰(aging well)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8(7), pp.201-221.
- 이경재, 남궁선. (2011).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역 노인여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59-81.
- 이민석, 강희엽, 이철원. (2017). 진지한 여가 참여노인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21), pp.503-515.
- 이삼식, 강은나, 박종서, 변수정, 이소영, 황남희, 김태일, 설재훈, 이준협, 이선희. (201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진, 송미순. (2015). Rowe와 Kahn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별 집단간 비교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2), pp.231-239.
- 이영익. (2008).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건강통제인식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pp.255-276.

- 이윤경, 정경희, 오영희, 염주희, 김향아.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1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8, pp.56-66.
- 이은주. (2014).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4), pp.51-63.
- 이재필. (2010). 여성회관 기능재정립의 논리와 과제: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1.
- 이정은, 조미형. (2009) 사회적 배제 집단 of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pp.79-103.
- 이종경,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간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pp.17-25.
- 이향숙, 신원우. (2016).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6(3), pp.157-165.
- 이혁. (2008). 노인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9(1), pp.603-615.
- 이훈, 황희정. (2008). 노인의 여가경험 분석. 관광학 연구, 32(6), pp.317-388.
- 임채수. (2011). 한국형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유니버설 공간·환경 디자인 지침 제안. 디자인학 연구, 24(4), pp.67-77.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춘광, 김효순. (2013). 노인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37(1), pp.1-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7). <http://www.kaswc.or.kr/welfarecenter>에서 2017.7.4. 인출.
- 한정란(2016). 고령사회와 문화정책: 고령사회 노인 여가문화교육과 사회적 역할.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현진희, 김희국. (2011). 노인의 여가활동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

- 지, 20(2), pp.351-359.
- 홍석호, 김순은. (2016).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지역의 유형화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pp.125-156.
- 황남희.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pp.37-69.
- Choi, Y., Park E, Kim J, Yoo, K, Choi, J, & Kwang L. (2015). A change in social activity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ged 45 years and more: analysi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0).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7(4), pp.629-637.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pp.375-394.
- Jung T. & Wickrama, K. A. S.(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pp.302-317.
- Lo, Y. & Mendell, N. R. & Rubin, D. B.(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pp.767-778.
- McGuire, F A., Boyd, R., & Tedrick, R. T. (2009). *Leisure and Aging: Ulyssean living in later life*. (4th ed.). Champaign, IL: Sagamore.
- Nimrod, G., & Janke, M. C. (2012). *Leisure across the late life span*. In *Leisure and Aging: Theory and Practice*(pp.98-9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Poelke, G., Ventura, M. I., Byers, A. L., Yaffe, K., Sudore, R., & Barnes, D. E. (2016). Leisure activiti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with cognitive complain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8(1), pp.64-69.

#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isure Facilities Utilization in Urban Elderly:**

## **Focusing on the Elderly Utilizing Leisure Facilities**

**Kim, Se 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ang, Eunn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of the urban elderly,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We used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244 urban-dwelling older people who had used leisure facilities at least once.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senior center type (50.0%), community center type (35.2%), public leisure facility type (10.4%),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type (4.4%). Also, demographic characteristic (with excluding income), health characteristic, and soci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ypes. Older people who were the lower age,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unemployed people, and the participation in a learning activity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ree types (community center,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Old adults who were male and have no spous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s of community center and public leisure facility,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Moreover, those who had higher income and participated in fellowship activ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 of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In addition, the elderly without any physic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community center type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infrastructure perspective were suggested to enhance better leisure life for the elderly.

---

**Keywords: Urban Elderly, Leisure Facility, Type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Latent Class Analysis**